

전남

지역 조산업계 위태롭다

국제 해운시장 불황에 수주 급감·인도 연기... 협력업체 대다수 경영난

세계적으로 해운시장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지역 조산업계에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조선경기 악화로 수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수주물량마저 인도연기 요청이 들어오는 등 조선업이 축인 지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미 수주한 선박마저 발주 취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대형조선업체를 비롯한 협력업체들의 긴장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올 9월 세계 3위 컨테이너 선사인 프랑스의 CMA-CGM이 모라토리엄 위기에 처한 데 이어 최근에는 대만 해운사 TMT도 자급에 시달리는 등 전 세

계 주요 해운사들이 줄줄이 휘청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조산업계도 적지않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대만의 TMT로부터 자동차전용선과 VLCC 등 8척을 수주한 현대상호중공업도 빼겨러는 상태다.

현대상호중 관계자는 "현재까지 중도금이나 지급돼야 할 자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TMT에서 인도 지연이나 중도금 분할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조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진해운으로부터 발주 받아 내년 인도하기로 한 5척의 컨테이너선도 모두 2011년 초반 이후로 인도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조선 역시 지난 10월 인도할 예정이었던 선박을 선사의 인도연기

요청에 의해 내년 3월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업체 관계자들은 "지역 대형 조선소인 현대상호중공업마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수주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위기는 최소한 2011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조선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대부분의 업체가 임금을 자진반납하는 등 비상경영에 돌입한 상태다. 일부 업체들은 '수주 가뭄'으로 인해 올 초부터 임금 전액 또는 10~20% 삭감을 단행해오고 있으며,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임금반납 사태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협력업체들은 "조선업체들의 수주 실적이 바닥을 헤매다시피 한 올해는 어찌어찌해서 버티겠지만, 2~3년 후가 고비"라며 "업종변경이나 폐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line@

으로 말미암아 협력업체들은 최악의 '돈 가뭄'에 시달리는가 하면 줄도산까지 속출하고 있다.

지난 9월 이후 대불산단단지내 선박부품 제조업체인 B업체가 27억3천600만원의 부도를 내고 문을 닫는 등 협력업체들의 고액부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밖에 220여개 협력업체 가운데 5개 업체가 문을 닫았고, 대다수 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들은 "조선업체들의 수주 실적이 바닥을 헤매다시피 한 올해는 어찌어찌해서 버티겠지만, 2~3년 후가 고비"라며 "업종변경이나 폐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line@

"어려울 때 받았던 은혜 다시 돌려드립니다"

장성 구재상·김희재씨 쌀 40포 불우이웃에 전달



<구재상씨> <김희재씨>

연일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가운데 장성에서 농민들이 1년 동안 가꾼 쌀을 이웃돕기에 기탁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23일 군에 따르면 남면에 거주하는 구재상(53·분항리)씨와 김희재(42·평산리)씨가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남면 경로당 등에 전달해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0kg 쌀 40포를 전달했다.

구씨가 기탁한 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소식을 듣고 애도하는 글귀를 흑미로 새겨 유명세

를 띤 일명 '바보쌀'로 생산되는 일부 쌀을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기탁한 쌀은 20kg 30포다.

구씨와 더불어 남면의 김씨도 20kg 쌀 10포를 기탁했다. 김씨는 2005년 급성백혈병으로 투병 중 장성군과 남면 주민들의 후원으로 골수이식 수술을 받고 완치돼 현재 친한농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이에 남면사무소는 쌀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지난 13일 40명의 소외계층에게 백미 1포씩을 전달했다.

함평군 레슬링 메카로 자리매김

도시지역 출장면허 '호응'

목포경찰·목포해경

선수권대회 종합우승 등 각종 대회 수상 잇따라

함평군이 최근 열린 전국 레슬링 종합선수권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등 레슬링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3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북 안동에서 막을 내린 대회에서 함평군 레슬링팀이 자유형 96kg급의 전경민 선수 등의 금 2개를 비롯, 은 2개, 동 2개를 따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전경민 선수가 윤성용 감독이 각각 대회 최우수상과 최우수 지도자상을 차지해 함평군정 레슬링의 명성을 높였다.

함평군은 지난 1984년 미국 LA 올림픽에서 김기원 선수가 금메달을 따

내면서 전국에 첫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이후 1988년 서울올림픽 금메달 김경남,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은메달 김종신 등을 배출하며 레슬링의 명문 고장으로 우뚝 섰다.

이에 함평군은 2002년 4월 군청에 선수 6명과 감독 1명으로 구성된 레슬링 실업팀을 창단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팀은 창단 이후 2008년까지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 3연패를 달성한 것을 비롯해 지난 7월 열린 제3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종합우승을 거두는 등 각종 대회에서 빠진

없이 두드러진 성적을 내고 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목포경찰서와 목포해양경찰서가 도시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출장면허 시험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수상례제 면허와 원동기 면허를 발급하는 목포경찰서와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리 신의면사무소를 찾아 신의·장산·하의도 주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했다. 목포해경이 주관하는 조종면허 시험에는 신의·장산·하의도 주민 70명이 응시했고, 목포경찰서가 주관하는 원동기면허시험에는 주민 65명이 응시했다.

시험에 앞서 목포해경은 수상례제기구 안전운행 등에 대한 이론 강의를 해 주민들의 필기시험 응시를 도왔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겨울 들녘, 벌써 내년 농사 준비

23일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들녘에서 한 농부가 내년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비료를 뿌리고 있다. 뒤쪽에 놓인 생벼짚 근포 사일리지지는 한우 먹이 등으로 사용된다. /최한배기자 choi@

완도군-동신대 '특화상품 개발' 협약

완도경찰, 과학수사로 상습 절도범 검거

완도군과 동신대학교는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종식 완도군수와 정기인 동신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농수산특산물 소재로 부가가치와 고용효과가 높은 특화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김 군수는 "한의학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대학인 동신대와 '건강의 섬' 완도군이 국민건강을 위한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에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나 신약 소재를 개발하고자 지원을 요청하며 대학의 두뇌와 기술을 지원해 다양한 해양생물자원과 한약재료를 결합한 건강기능성 식품과 신약 개발에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정 총장은 "완도군이 건강식품이

완도경찰이 전남 서남해안 항구 인근 목욕탕과 모텔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선원을 핸드폰·CCTV 등을 이용한 과학적인 수사로 범잡았다.

23일 완도경찰에 따르면 여수선적 멀치잡이 어선 선원 이모(51·경남 마산시)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는 멀치잡이 배를 타고 완도·해남·진도 등 서남해안 항구에 접안한 뒤 인근 목욕탕 등을 돌며 사물함에 있던 5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

금속, 카드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그동안 여수와 경남 통영 등지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건의 절도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완도경찰서 감동일 형사팀장과 위영남, 임명진, 임학진 형사 등은 피해자들로 부터 신고를 받고 잠복과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절도후 어선 선실에서 생활하던 이씨를 검거하는 계기를 올렸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진도 전통문화 맛보고 싶다면

'운림예술촌'으로 오세요

천연기념물 제107호인 철쭉산 상록수림으로 유명한 진도군의 신선면 사삼마을에 민속놀이와 국악 등 전통문화를 맛볼 수 있는 '운림예술촌'이 문을 열었다.

23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개원한 운림예술촌은 35여원을 들여 5천100㎡ 규모의 전통 주제공원, 전통 체험관 및 특산물 판매장, 수라간 체험장 등이 갖춰졌다. 또 마을 3곳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돌담길 4.3km 정비와 함께 슬래이트 지붕도 교체했다.

이번에 개관한 운림 예술촌은 지난 2004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테마마을의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운



영위원회가 체계적으로 조직돼 있으며, 특산물 홍보관과 서예 체험실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운림예술촌 주변에는 진도를 대표하는 자연자원인 철쭉산을 배경으로 남종화의 본산인 운림산방과 고적이 천연기념물, 진도역사관, 소치기념관이 위치해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진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문화관광 인프라가 풍부하다. 특히 연초 불꽃축제와 정월 대보름 놀이, 매년 11월 들깨 주 주말 운림예술촌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진도=백현영기자 hypark@

Larg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매 (Korea National Auctioneer Association) featuring a table of auction results across various regions like Gwangju, Jeonnam, and Jeonbuk.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public auctioneer Kang Young-ho.